주간 보험동향

2001.5.7	동향분석팀	제80호

1. 금주의 Highlight

◆ 수출입 감소와 대응

2. 금융동향

◆ 금리 : 전주대비 0.32%p 하락

◆ 환율 : 원/달러 하락, 엔/달러 하락

◆ 주가 : 전주대비 5.2% 상승

3. 보험산업 동향

◆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보험료 인상

◆ 화재보험료 대폭 인상 전망

◆ 한일생명 영업정지 조치 해제 예상

◆ 보험사의 신용카드업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

KIDI 보험개발원
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

1. 금주의 Highlight : 수출입 감소와 대응

□ 2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,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함에 따라 수출감소과 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
- o 2001년 4월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9.3% 감소하였는데, 이는 3월의 1.8% 감소보다 확대된 것임.
- o 수입의 동반감소로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10.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이는 전체 수출입 규모의 감소를 의미함.

□ 수출 둔화의 주된 요인은 미국,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 국가의 경기침체와 반도체, 컴퓨터 등 IT 관련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단가 하락임.

□ 수출감소세가 단기에 회복되기 어려운 세계경제환경의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취약한 수출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.

- o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요회복을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으며, 주요 수출품목인 IT 관련 제품의 가격도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당분간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o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품목별 편중현상이 계속 확대되어 왔고, 미국과 일본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도 상승추세를 지속해오는 등 수출구조의 개선이 없었던 내재적 문제가 있음.

□ 정부는 최근 투자 및 수출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.

- o 수출마케팅 강화대책 : 무역·투자사절단 파견을 비롯한 세일즈 외교 강화, 중소·벤처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지원센터설치,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확대
- o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강화대책 : 공사수주 지원 외교, 수출보험공사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인수 한도 탄력적 운용
- o 이에 비해 재계는 은행의 D/A(수출환어음) 매입확대,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보증 한도 확대, 종합상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% 제한의 탄력적 적용 등 실질적인 지원을 주장하였음.

2. 금융동향

□ 금리

- 회사채 금리는 투신권 MMF 환매문제가 일단락되고, 두달 연속 수출 감소로 경기회복 전망이 어두워지며 환율마저 크게 하락하자 매수세가 폭넓게 들어와 하락세 시현. 전주대비 0.32%p 하락.
- 국채 금리도 전주대비 0.4%p 하락.

주요 채권금리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	30일	1일	2일	3일	4일	전주대비
회사채	8.05	-	7.87	7.81	7.79	-0.32%p
국 채	6.80	-	6.57	6.50	6.45	-0.40%p

□ 환율

- 원화는 달러/엔 급락과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국내외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외국인 주식순매수규모가 늘어나며 강세 시현.
- 엔화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Koizumi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강세 시현.
- 유로화는 미국의 4월 NAPM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강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美 고용사정 악화를 나타내는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럽경제 회복에 대한 특별한 호재를 찾지 못하며 약세로 반전.

주요 환율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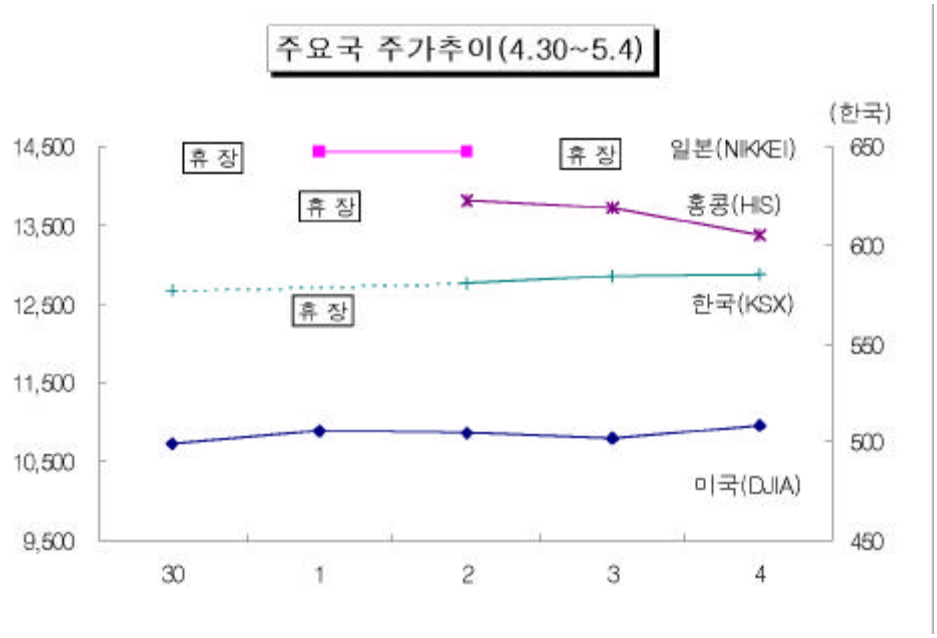
구 분	30일	1일	2일	3일	4일	전주대비
원/달러	1,315.00	-	1,302.80	1,294.50	1,298.20	-29.40
원/100엔	1,061.51	-	1,070.06	1,064.38	1,071.83	+2.48
엔/달러	123.60	121.97	121.47	121.38	121.32	-2.69
달러/유로	0.8870	0.8930	0.8941	0.8902	0.8924	-

□ 주식시장

- 금주의 주식시장은 전주말 미국에서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GDP 발표로 증시가 강세를 보인데 따른 영향과 환율 금리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투자심리가 호전되어 외국인들의 순매수규모가 확대되며 상승세 시현.
-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5.2% 상승.
-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전달보다 높게 나타난 4월중 제조업지수 발표와 P&G의 기대이상의 분기실적 공시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실업수당 신청자수 및 4월 기업 감원규모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한 경제둔화에의 우려감 확산으로 하락세 시현. 주말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세 시현. 전주대비 1.3% 상승.
- 일본은 3.5% 상승.
- 홍콩은 0.04% 상승.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구 분	30일	1일	2일	3일	4일	전주대비
한 국(KSX)	577.36	-	581.00	584.40	585.60	+28.97
미 국(DJIA)	10,734.97	10,898.34	10,876.68	10,795.65	10,951.24	+141.19
일본(NIKKEI)	-	14,425.46	14,421.64	-	-	+487.32
홍 콩(HIS)	-	-	13,814.24	13,718.14	13,390.99	+4.95



3. 보험산업동향

□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보험료 인상

- 금융감독원은 국내 11개 손보사들이 제출한 "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대한 상호협정" 변경을 승인하였음.
-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불량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%p 인상되었음(보험료 기준 약 7% 정도 상승).
- 불량물건 공동인수 협정이란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키거나 사고율이 높은 지역의 가입자, 음주운전·뺑소니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불량가입자들이 무보험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한 뒤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공동분담하는 제도임.
- 현재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의 수는 영업용차량 및 승용차를 포함해 20만 8,000대로 전체 차량의 1.8% 수준임.
- 승인이 이루어진 협정변경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임.

□ 화재보험료 대폭 인상 전망

- 해외재보험시장의 요율인상과 지난해의 국내 대형 화재사고 등의 영향으로 화재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전망임.
- 과거 화재사고가 없었던 우량 고객 기업의 경우 화재보험 계약 갱신시 20 30%의 보험료인상이 예상되며, 손해율이 높은 고객 기업의 경우 50 200%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됨.
- 국내 손보사들은 매년 기업과 대형화재보험계약을 맺으면서 해외재보험사에 출재를 하고 있는데, 최근 해외 재보험사들의 실적악화에 따라 재보험요율이 크게 인상되는 하드마켓(hard market)화 현상이 크게 진행되었음.
- 국내에서도 작년 새한미디어 충주공장, 동방생활산업, 삼성테크윈 등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고, 올해에도 코오롱 구미공장, 대농 청주공장, LG전자 구미공장 등에서 대형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여, 해외 재보험사들은 국내 기업물건에 대해 재보험료 인상을 요구함.

□ 한일생명 영업정지 조치 해제 예상

- 부실보험사로 지정되어,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한일생명의 영업정지조치가 해제될 전망임.
- 한일생명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대주주의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했지만, 쌍용그룹 계열사에 대한 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으로 인해 이를 인정받지 못했음.
- 지난 30일 대출금이 회수됨에 따라 금감위가 제시한 자력회생 기준을 지키게되었고, 영업정지 해제, 부실금융기관 해제 등을 요청하였음.
- 금감위는 한일생명이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영업을 정상화시킬 예정이며, 한일생명은 5월 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임원진을 선임할 예정임.

□ 보험사의 신용카드업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

- 금감위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정비, 이르면 6월말부터 금융회사, 일반기업의 신용카드업에 대한 신규진입을 허용할 방침임.
-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은 보험의 경우 지급여력 150% 이상, 은행 BIS 비율 10% 이상, 여전회사 실질 자기자본비율 9% 및 영업영위 2년 이상, 금융지주회사 필요 자기자본비율 120% 이상,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230% 이상 등임.

  · 이에 따라 보험사의 신용카드업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임.
-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 영위능력에 관한 허가요건으로는 ①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② 전산설비 및 점포 30개 이상 ③ 금융거래고객 15만명 이상 ④ 법정자본금 포함 800억원 이상 자기자금 확보 ⑤ 주요 출자자(지분 10%이상) 요건으로 자기자금으로 출자, 부채비율 200% 이내, 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이 없어야함 등을 제시하였음.
- 다만, 일시에 너무 많은 신규진입이 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, 허가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, 장기적으로는 2 3년 후 신용카드시장의 실태를 감안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.